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알파벳과 AI 주도, 증시 최고치 경신

- 주요 지수 혼조세: 다우존스 및 러셀2000 하락, 나스닥과 S&P500 상승
- 알파벳 실적 발표 후 AI 관련 기술주 강세
- 미국-유럽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으로 시장에 긍정적 영향

Summary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가 각각 0.18%와 0.07% 상승,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침.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70% 하락하며 블루칩 주의 부진한 실적과 테슬라, IBM 등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함. 알파벳의 2분기 호실적이 기술주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침. 시장은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상 타결 임박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함. 반면, 테슬라는 실적 부진과 머스크의 발언으로 주가가 8% 넘게 하락하며 시장 일부에 부담을 주었음.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천 건 감소한 217,000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견조한 고용 시장 상태를 보여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함. 이와 더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부정적 전망 발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야기하며 테슬라 주가는 추가 하락세를 보였음. 연방준비제도(Fed)와의 갈등에 불을 지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였음. S&P 500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AI 관련 기대감과 무역협상 전망이 주효했으며, 다가올 경제 지표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Fed 방문 여파가 시장의 추가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다우 -0.70%, 나스닥 +0.18%, S&P500 +0.07%, 러셀2000 -1.36%)

특징종목

아마존(+1.7%)은 플로리다에 1억 3,9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케네디 우주센터에 발사 준비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함. 이는 '프로젝트 쿠이퍼'의 발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또한, 중국 상하이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폐쇄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일부 축소하는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음. 알파벳(+0.9%)은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실적 발표와 함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견고한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세를 보임. 엔비디아(+1.7%)는 AI 수요 급증과 SK하이닉스와의 협력으로 강력한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 상승의 주요 요소로 작용함.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23%)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 급등을 나타냈으며, 미래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유나이티드 렌털스(+9%)는 분기 실적 발표 후 매출 증가 및 주가 매입 계획 발표로 수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급등함. 엘버말(+6.8%)은 리튬 수요 증가와 함께 미래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주가가 급등함. 랩코프(+6.9%)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주가 상승 및 자산 지표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반면 테슬라(-8.2%)는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과 1분기의 전기차 인센티브 종료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 IBM(-7.6%)은 최근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함.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이 부진해 투자자들의 실망을 초래함. 치폴레(-13%)는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외식 수요 감소로 인해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여 주가가 급락함. 특히, 동종 매장 판매가 기대보다 저조하여 투자자들이 실망함. 사우스웨스트 항공(-11%)는 최근 실적에서 매출 및 이익이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함. 항공 여행 수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우려가 커짐. 다우(-17%)는 예상보다 저조한 2분기 실적 발표와 배당금 지급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급락함. 허니웰(-6.2%)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회사의 분사 계획 관련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이어짐.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0으로 마감하여 최근의 경제 지표와 무역 흐름을 기반으로 한 금리 전망 평가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영국은 4.63로 소폭 하락한 반면, 일본은 1.60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음.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DXY)가 97.48로 회복하며 노동시장 강세를 기반으로 하루 0.28% 상승하였음. 주요 통화로는 유로/달러가 1.17로 약간 하락하였으며, 엔/달러는 146.98로 0.44% 증가했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 가격이 하루 동안 1.39% 상승하여 66.16 달러로, 브렌트유는 1.18% 증가하여 69.32 달러로 마감하며 에너지 섹터의 상승세를 보여줌. 금과 은은 각각 0.57%와 0.53% 하락하여 3368.43 달러와 39.05 달러로 마감했으며, 이에 반해 철강 가격은 1.56% 올라 3258.00 CNY로 거래되었음. 산업 부문에서는 네오디뮴의 가격이 569.50 CNY로 하루 동안 7.35% 상승하였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